

계몽과 선동:
일제강점기 경성방송국의 공연중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은진
(전북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2. 콘서트 중계
 - 1) 일본콘서트의 중계
 - 2) 국내콘서트의 중계
3. 무대극 중계
4. 교환방송
5. 나가며: 선망과 계몽에서 프로파간다로

개 요

이 글에서는 경성방송을 통해 중계된 음악회 및 공연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음악공연 중계방송이 당대의 음악문화 및 대중적 인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음악공연 중계방송을 일본 콘서트 중계, 국내 콘서트 중계, 무대극 중계, 교환방송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공연중계방송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추적하였다.

경성방송국에서 중계한 일본의 콘서트 프로그램은 조선의 청중에게 더 좋은 클래식음악을 들려주겠다는 계몽적 의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럽음악에 대한 선망을 조선보다 선진적인 음악문화를 가진 일본에 투사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문화 권력을 내면화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국내콘서트 프로그램 역시 다음 세대의 음악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학교음악회와 콩쿠르 등을 비중 있게 다루어 조선의 음악계를 계몽해야 한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한편,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교환방송은 일본과 유럽의 교환방송과 조만교환방송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과 유럽 간의 교환방송은 선망의 대상인 유럽과 음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본 음악계에 대한 동경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조만교환방송은 전파 네트워크를 통해 대동아공영의 기획을 구현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경성방송의 음악공연 중계방송이 내포하고 있던 유럽 선망과 계몽적 의도는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전유되었으며, 조선 청중에게 일본의 우위를 감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이러한 기제는 해방 이후 미국 음악계에 대한 선망과 냉전 프로파간다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면서, 음악에 대한 위계적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주제어: 경성방송국, 중계방송, 유럽 선망, 계몽적 의도, 프로파간다

1. 들어가며

경성방송국은 1927년 2월 16일 개국한 이래 조선인의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개국 초기에 조선어 방송과 일본어 방송을 번갈아 편성한 혼합방송으로 운영하다가 1933년 4월 26일부터 제1방송(일본어 방송)과 제2방송(조선어 방송)을 분리하여 이중방송을 실시한 것 역시 조선인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¹⁾ 또한 대중적 호응과 관심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악프로그램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편성했다. 특히 조선인을 주된 청취대상으로 했던 제2방송에서는 음악부문에 큰 비중을 두어, 다양한 장르의 서양 클래식음악과 조선음악, 동요, 대중음악 등 조선인 청취자의 취향을 고려한 편성을 보여주었다.²⁾ 이처럼 경성방송국의 음악프로그램은 조선인 청중의 음악적 감각을 형성하고 당대의 음악 문화를 구성하는 과정에 긴밀하게 관여하였다.

경성방송의 편성주체들이 음악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중계방송에서도 드러난다. 경성방송은 야구,³⁾ 아이스하키⁴⁾ 등 국내에서 개최된

1) 이중방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조선어 방송의 비중이 적다는 청취자들의 불만이 쇄도했기 때문이었다. 박용규, “일제하 라디오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7/2(2010), 141쪽. 또한 이 시기부터 방송 시간도 확대하고 보급형 라디오 수신기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부산(1935), 평양(1936), 청진(1937), 이리(1938), 함흥(1938) 등의 지역방송사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김은규, “근대 잡지를 통해 본 1920·30년대 ‘라디오 방송’의 수용에 관한 연구: 『별건곤』과 『삼천리』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1/2(2015), 10쪽.

2) 박기성, 『한국방송사』(대구: 원명당, 2014), 180쪽; 이중방송이 실시되면서 연예 및 어린이 시간을 이혜구가, 강연, 강좌 및 라디오 학교를 이하운이 담당하다가, 1935년부터는 이혜구가 음악 부문을, 최승일이 연예 부문을 담당하게 되었고, 1937년부터는 이서구가 연예 부문을 담당했다. 음악 부문을 양악 전반과 조선음악 중 아악, 가곡, 가사, 남도판소리 및 잡가, 유행가 등을 담당했고, 연예 부문은 조선음악 중 남도소리를 제외한 경기 및 서도 잡가 등을 담당했다. 박용규, “일제하 라디오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150-152쪽.

3) 예를 들어 1940년 7월 24일 경성운동장, 평양부 기림리 공설운동장에서 중계.

각종 운동경기를 비롯하여 일본과 조선 각지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를 중계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음악공연 프로그램이었다.

이 글은 경성방송에서 중계된 음악공연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각의 성격과 변화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음악공연 중계방송이 당대의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과,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작동하게 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성방송국의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이미 언론학계, 한국음악학계, 서양음악학계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⁵⁾ 공연중계방송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개최된 음악회에 대한 연구⁶⁾ 역시 최근 들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음악회와 방송을 연계하여 다룬 연구는 보기 드물다.⁷⁾

4) 1940년 1월 20일 동송정 대학링크에서 중계.

5) 언론학계에서는 서재길, “JODK 경성방송국의 설립과 초기의 연예방송,” 『서울학연구』 27 (2006), 147-173쪽; 이상길, “경성방송국 초창기 연예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 『언론과 사회』 20/3 (2012), 5-74쪽; 박용규, “일제하 라디오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7/2 (2010), 134-172쪽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한국음악학계에서는 송소라, “20세기 창극의 음반·방송화 양상과 창극사적 의미,”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7); 김명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방송활동: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30 (2003), 145-174쪽 등이 발표되었다. 서양음악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중 김지선의 『경성방송국 음악방송편성 총목록집』(서울: 민속원, 2023)은 음악방송편성표를 정리하여 경성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귀중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어신문을 토대로 한 편성표이기 때문에 제2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 그밖에 이은진, “일제강점기경성방송국 서양음악프로그램을 통해 본 당대의 음악적 인식,” 『음악과 현실』 67 (2024), 5-43쪽; “총력전시기 경성방송국 음악프로그램과 ‘국민’의 호명,” 『음악과 현실』 68 (2024), 5-45쪽 등이 있다.

6) 김희진, “한국의 근대 연주회장 연구: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1); 공애희, “근대 ‘복합 문화공간’의 탄생과 ‘취미’의 이중연출: 부민관 음악회를 중심으로(1935~1945),”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8); 조윤영, “경성의 음악회(1920~1935): 식민지 일상과 근대의 경험, 그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8); 이경분, “문화·정치적으로 본 신교향악단의 경성연주회(1939~1940),” 『한국예술연구』 29 (2020), 131-154쪽; 신혜승 외, 『경성의 소리문화와 음악공간』(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2) 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방송을 통해 중계된 음악회 및 공연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방송 편성주체의 의도가 일제당국의 의도와 어떤 식으로 길항하고 타협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간지에 게재된 라디오편성표를 전수 조사하여⁸⁾ 이중방송이 실시된 1933년 이후의 음악공연중계 방송 목록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콘서트중계방송, 무대극중계방송, 외국방송과의 교환방송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공연중계방송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추적해볼 것이다. 이 글은 음악공연의 중계방송이 조선의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2방송에서 중계된 음악공연 방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방송매체가 당대의 음악문화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관여한 방식을 파악하려는 이 연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음악장르에 대한 위계적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되짚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경성방송의 편성주체가 음악공연 중계방송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계몽적 의도가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작용하게 된 기제를 파악함으로써 프로파간다의 작동원리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콘서트 중계

경성방송은 이중방송 실시 초기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회를 중계했다. 그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일본방송에서 중계한 서양 클래식음악 콘서트를

7) 송방송, “1920년대 방송된 전통음악의 공연양상: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6/3 (2000), 160-210쪽은 공연과 방송을 연계하여 살펴보고 있다.

8) 이를 위해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에 게재된 방송편성표를 전수조사하고, 김지선의 『경성방송국 음악방송편성 총목록집』과 비교하여 제1방송 및 제2방송에서 중계된 공연프로그램 및 연주곡목을 파악하였다.

경성방송에서 송출한 프로그램이었다.⁹⁾ 이는 일본방송을 조선에 중계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 동시에¹⁰⁾ 국내 청취자의 반응을 수용한 편성이기도 했는데, 외국 연주자들에 비해 수준이 낮은 국내 연주자들의 스튜디오 실연보다는 중계방송이나 레코드 방송이 낫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¹¹⁾ 이와 더불어, 일본의 콘서트보다 그 빈도는 낮지만 국내에서 개최된 음악회 역시 선별적으로 중계되었다. 이 장에서는 경성방송국에서 중계한 콘서트 프로그램을 일본 콘서트와 국내 콘서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콘서트의 중계

경성방송이 일본방송국으로부터 중계한 클래식음악 콘서트는 일본방송 교향악단, 오사카방송교향악단, 나고야방송교향악단 등 방송국 전속교향악단의 연주와 유명 음악학교의 연주회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콘서트는 다양한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 콘서트

9) 경성방송국은 개국 초기부터 일본방송을 중계하는 비중이 컸지만 주로 연예 프로그램을 중계했고, 클래식음악회의 중계방송은 이중방송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제2방송에서 중계된 일본 콘서트 프로그램은 제1방송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중계되었지만, 제1방송에서만 중계된 콘서트도 있었다. 이후 제시되는 표에서 제1방송에서만 중계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기하였다.

10) 경성방송국은 개국 초기부터 일제가 자국의 문화와 정책을 전파하는 통로이자 재조 일본인에게 “단합된 국민의식과 일본문화의 우월성을 고취시키는” 도구로 기능했으며, 이를 위해 일본방송의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박기성, 『한국방송사』, 158, 170쪽.

11) 예컨대 음악평론가 김관은 “음악 문외한의 음악가, 즉 사이비 음악가의 매명적 방송이 태반을 넘는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중계방송이, 레코드 방송이 나을듯해요”라고 경성방송의 양악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김관 외, “조선악단 회고와 전망,” 『중앙』 3/4 (1935), 122쪽; 또한 그는 “동경으로부터의 음악방송 중계를 좀 더 당분간(조선악계가 융성해 가는데 따라서 차차 완감시키도록 하고)은 증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관 외, “라디오음악방송비판,” 『조광』 1937년 9월호, 329쪽.

중계방송은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클래식 레퍼토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즉 일본방송국의 콘서트 중계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경성방송에 편성한 것은 조선의 음악애호가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음악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성방송국에서 중계한 일본의 클래식음악 콘서트 현황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이중방송이 시작된 1933년부터 방송편성회가 설치된 1935년 4월 이전까지로, 이중방송 초기의 음악공연 중계방송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²⁾ 두 번째 시기는 방송편성회가 설치된 1935년 4월부터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방송심의회가 설치되기 전인 1937년 12월까지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기의 중계방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¹³⁾ 세 번째 시기는 방송심의회¹⁴⁾ 설치 이후인 1938년부터 해방 전까지로, 전시체제와 더불어 일제 당국의 통제가 심화된 시기의 중계방송편성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첫 번째 시기인 1933년부터 방송편성회 설치 전인 1935년 3월까지 경성방송에서 중계된 일본 콘서트의 목록이다.

[표 1] 1933-1934년의 일본 콘서트 중계방송

일시	장소	작곡가	작품	연주자
1933	동경	리스트	<헝가리광시곡> 2번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니콜라이 시페르블라트
1002	신교향악단 연습소 ¹⁵⁾	샤브리에	<스페인광시곡>	

12) 강혜경, “일제말기 조선방송협회를 통해 살펴본 방송통제,” 『한국민족사연구』 69 (2011), 323쪽.

13) 강혜경, “일제말기 조선방송협회를 통해 살펴본 방송통제,” 324쪽.

14) 방송심의회는 방송편성회를 강화한 것으로, 조선총독부 위원회 간사, 방송 감독관, 소수의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프로그램 편성 방침, 주의사항, 희망사항 등을 통보함으로써 방송편성을 통제하였고,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 간사가 참여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중계방송을 확대 편성하도록 했다. 박기성, 『한국방송사』, 183, 205쪽.

1933 1006	신교향악단 연습소	베토벤	<신의 영광> ¹⁶⁾	관동남성합창연맹 외
		슈베르트	<숲에서> 호른 반주 <내 고향>	
		하시모토 쿠니히코 (橋本邦彦)	<남성합창과 피아노의 소협주곡> 5번 외 일본곡 다수 ¹⁷⁾	
1933 1111	신교향악단 연습소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3막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야마다 고사쿠(山田耕作)
1933 1119	신교향악단 연습소	리스트	교향시 <탓소>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마리오 파치
		마그너	<지그프리트의 목가>	
1934 0621	신교향악단 연습소	모차르트	<교향곡 C단조>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레오니드 크로이처
1934 0629	오사카 모모다니 연주소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op.77	오사카방송교향악단 지휘 요제프 라스카 바이올린 콘라드 리프레히트
1934 0724	신교향악단 연습소		합창과 관현악 (해설)	동경리다·타켄·펠라인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야마모토 나오타다 (山本直忠)
1934 0909	신교향악단 연습소	모차르트	<호른협주곡>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니콜라이 시페르블라트 호른 발터 슈레트
1934 1110	신교향악단 연습소	차이콥스키	서곡 <1812년>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시노하라 마사오(篠原正雄)
1934 1112	동경 일본청년회관	헨델	<할렐루야> 코러스	동경도내 음악학교합창단 동경음악학교관현악단 지휘 사와자키 사다유키 (澤崎定之)
1934 1115	신교향악단 연습소	드보르자크	<첼로협주곡 B단조>	일본방송교향악단 첼로 엠마누엘 포이어만
1934 1123	신교향악단 연습소	푸치니	<나비부인>	하라 노부코(原信子) ¹⁸⁾
		마스카니	<이리스> 외 일본곡 1곡	하라 노부코 연구소원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야마다 고사쿠
1934 1128	동경 히비야공회당	헨델	오라토리오 <살로모> 2, 3막	합창 무사시노(武蔵野)음악학교 신교향악단

1934 1202	신교향악단 연습소	프로쿠피예프	<고전 교향곡 D장조> 외 3곡 ¹⁹⁾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니콜라이 시페르블라트
1934 1229	신교향악단 연습소	홉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아마다 고사쿠
1935 0216	히비야공회당	말러	<교향곡 3번> 4, 5, 6악장	동경음악학교연주회 : 동경음악학교실습악단 지휘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독창 히리하라 토시요코 (平原壽恵子) 합창 우에노(上野)이동음악학원
1935 0322	히비야공회당	베토벤	<교향곡 9번>	자유학원합창단, 동경합창단, 동경고등음악학원합창단 합창지휘 아마모토 나오타다 (山本直忠)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고노에 히데마로(近衛秀麿)
1935 0324	동경 구단(九段) 군인회관	비제	<카르멘> 2막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아마다 고사쿠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33년부터 1935년 3월까지 경성방송이 중계한 일본의 클래식음악 콘서트는 신교향악단/일본방송교향악단²⁰⁾과 오사카방송교향악단 같은 방송국 전속 오케스트라와, 동경음악학교, 무사

-
- 15) 신교향악단연습소와 모모다니 연주소에서 중계된 프로그램 목록은 공개콘서트와 방송을 위한 연주를 모두 포함한 목록이다.
 - 16) 베토벤의 <6개의 가곡> op.48 중 “Die Ehre Gottes aus der Natur”를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 17) 그밖에 <독일국가>, <新曉>(미야기 미치오(宮城道雄)), <기미가요>가 연주됨.
 - 18) 하라 노부코는 이날 함께 연주된 <일본의 제제에 의한 두 가지 예>에서 독창을 담당했다.
 - 19) 그밖에 <청춘시대>, <동경과 번뇌>, <남쪽의 섬>이 연주됨.
 - 20) 신교향악단은 NHK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전신으로, 방송과 관련된 연주회에서는 일본 방송교향악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경분, “문화·정치적으로 본 신교향악단의 경성 연주회(1939-1940),” 133쪽.

시노음악학교 등의 연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신교향악단/일본방송교향악단은 니콜라이 시페르블라트(Nicolai Shiferblat, 1929-1936년 역임), 마리오 파치(Mario Paci, 1878-1946), 레오니드 크로이처(Leonid Kreutzer, 1884-1953)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일본의 작곡가 겸 지휘자 야마다 고사쿠(1886-1965), 고노에 히데마로(1898-1973) 등이 단원을 이끌면서, 헨델부터 훔퍼딩크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다음 [표 2]는 방송편성회 설치 이후인 1935년 4월부터 방송심의회가 설치된 1937년 12월까지 경성방송에서 중계된 일본 콘서트의 목록이다.

[표 2] 1935-1937년의 일본 콘서트 중계방송

일시	장소	곡명		연주자
1935 0415	교토 아사히(朝日) 회관	차이콥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 B♭ 단조> ²¹⁾	피아노 루빈슈타인 신교향악단 지휘 고노에 히데마로
1935 0522	오사카 아사히회관	야마다 고사쿠	오페라 <흑선(黑船)>, <프로옴니아>	다카라즈카(宝塚) 교향 관현악단 코리나니와 아사히코러스 관서학원
1935 0917	모모다니 연주소	바흐, 헨델	무용음악 ²²⁾	“무용음악” : 오사카라디오오케스트라 오사카취주악단 지휘/편곡 스가하라 메이로 (菅原明朗)
1935 0918		하이든	<놀람 교향곡> 중 미뉴엣	
		모차르트 베토벤	<독일무곡> 중 <미뉴엣>	
		요한 슈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1935 0919		요한 슈트라우스	<폴카> 외 취주악 ²³⁾	
1935 0926	모모다니 연주소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오사카방송교향악단 지휘 에마누엘 메테르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에라자드> 중 '칼렌더 왕자의 이야기'	
1935 1013	히비야공회당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관현악협주곡 C장조> Op.32	동경음악학교관현악부 지휘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1935 1029	교토 도시샤 에이코칸 (同志社榮光館) 화라강당	헨델	<메시아> 외	도시샤혼성합창단, 도시샤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모리모토 미츠오 (森本芳雄)
1935 1113	히비야공회당	아르카델트	<아베마리아>	제3회 음악주간 대합창 : 일본교육음악협회 ²⁴⁾ 지휘 오즈카 준(大塚淳)
		바그너	<탄호이저> 중 '합전의 서주', '대행진곡과 합주'	
		일본곡	<황국일본> 등 일본곡	
1936 0129	히비야공회당	케루비니	<진혼곡 C단조>	무사시노음악학교생도 신교향악단 지휘 아우구스트 융커
1936 0215	히비야공회당	브루크너	<교향곡 9번> 1, 2악장	동경음악학교연주회 : 동경음악학교 관현악부 지휘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1936 0226	모모다니 연주소	바흐	<토카타와 푸가 D단조> <4대의 건반을 위한 협주곡> 현악합주	오사카방송교향악단 지휘 미야하라 사다즈구 (宮原禎次)
		모스쿠프스키	<프렐류드와 푸가>	
1936 0320	니혼마시 미쓰코시 (日本橋三越)	브람스	<헝가리무곡> 5번	파이프오르간
		수자	<성조기여 영원하라> 외 2곡 ²⁵⁾	
1936 0323	모모다니 연주소	발트다이펠	<여학생왈츠> 외 6곡 ²⁶⁾	오사카라디오오케스트라 지휘 후쿠키 타마사오 (福喜多鎮雄)
1936 0327	모모다니 연주소	그리그	<피아노소나타>	"1836년 이후의 피아노곡" : 레오니드 크로이처
		리스트	<메피스토펠츠> <헝가리광시곡> 15번	
1936 0329	모모다니 연주소	랄로	<첼로협주곡>	첼로 요시다 타카히사 (吉田貴壽) 오사카방송교향악단 지휘 후쿠키 타마사오
		마스네	<회화적 정경> 중 ²⁷⁾	
1936 0422	모모다니 연주소	브람스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24 <광시곡 E♭장조> Op.19	1836년 이후의 피아노곡 : 레오니드 크로이처

1936 0427	모모다니 연주소 (제1방송)	모토니 초오에 (本居長彦)	서정가극 <몽(夢)>	오사카방송교향악단 아사히코러스 지휘 모토니 초오에
1936 0526	모모다니 연주소	슈만	<교향적 연습곡> Op.13 <환상곡>(華想曲) <간주곡> <밤에>	“1836년 이후의 피아노곡” : 레오니드 크로이처
1936 0619	모모다니 연주소	라흐마니노프 스크랴빈 무소르스키	3개의 <전주곡> ²⁸⁾ 2개의 <시곡> op.32 2개의 소품 ²⁹⁾	“1836년 이후의 피아노곡” : 레오니드 크로이처
1936 0711	모모다니 연주소	마르셀 들라노아	<음의 자태>	오사카방송교향악단 지휘 쿠라시게 슌스케 (倉重瞬輔)
1936 0918	모모다니 연주소	에구치 요시 (江口夜詩) 핫토리 료이치 (服部良一)	<지켜라 대공권> <조국의 기둥> 외 3곡 ³⁰⁾	오사카라디오오케스트라 오사카방송합창단
1936 1020	모모다니 연주소	드뷔시	<작은 모음곡>	오사카방송교향악단 지휘 에마누엘 메테르
1936 1022	동경 천주교회	바그너 구노	<탄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 <아베마리아> 외 2곡 ³¹⁾	파이프오르간 : 와베 와카비(邊若琵琶)
1936 1112	히비야공회당		<친인합창>	
1936 1219	히비야공회당	바그너	<신들의 황혼>	동경음악학교관현악부 지휘 클라우스 프링스하임
1937 0210	나고야교향악단 연습소	보로딘	<이고르 공> 중 2곡 외 1곡	나고야교향악단
1937 0419	히비야공회당	글루크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동양음악학교학생합창 신교향악단 지휘 스기야마 와세오 (杉山長谷夫)
1937 0505	히비야공회당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신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신교향악단 지휘 요제프 로젠슈토크
1937 0619	히비야공회당	바흐	<마태수난곡>	동경음악학교연주회

1937 0621	오사카 아사히회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신교향악단 지휘 펠릭스 바인가르트너
1937 0717	나고야 교향악단 연습소	차이콥스키	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중 '백조의 춤', '헝가리 무곡'	나고야교향악단 지휘 하야카와 미에몬 (早川彌在衛門)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蝙蝠)>	
		사반	모음곡 <아메리카 여인> 중	
1937 1111	히비야공회당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	보국음악주간 대합창 : 대일본연합합창단 동경도내 음악학교/대학 전문합창단 동경음악학교생도관현악단
		야마다 고사쿠	<국민가> 외 5곡 ³²⁾	
1937 1201	히비야공회당	베토벤	<교향곡 2번> 4악장	신교향악단 지휘 야마다 고사쿠

- 21) 편성표에 작곡가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작품명으로 볼 때 차이콥스키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22) 살타렐로, 파바나, 갈리아르, 가보트, 사라방드, 파사칼리아, 쿠랑트가 연주됨.
- 23) 그밖에, <콰드릴>(텔함), <루즈템포>(파르), <체사피크만을 간다> 중 '윈스텝'(포드), <럭 다이> 중 '붉은 장미'(웬리허) 등의 경음악이 연주되었다.
- 24) 주오(中央)음악학교, 제국고등음악학교, 동경음악학교, 동경고등음악학교, 도요(東洋)음악학교, 일본(日本)음악학교, 무사시노(武藏野)음악학교, 조오치(上智)대학 올포이스합창단, 도요(東洋)대학 남성합창단, 화이트합창단, 유포닉·코라스, 부라우리히트 코-르, 루나·오리온코-르, 와세다(早稻田)대학 합창부 등이 참여했다.
- 25) 그밖에 <봄의 산울림>(프리틀), <인형의 결혼식>(브라운)이 연주됨.
- 26) 그밖에 행진곡 <우뢰>(스기), <자동차여행>(빗드구도), <급행열차>(부에)가 연주됨.
- 27) 이중 '만중'과 '보헤미아축제'가 연주됨.
- 28) Op.3 No.2, Op.23 f#단조, Op.32 No.5 g단조가 연주됨.
- 29) 이중 '바바야가', '키이우의 탑'이 연주됨.
- 30) 그밖에 <조국애>(에구치 요시), <방인의 노래>(히로다리 유우타로)가 연주됨.
- 31) 그밖에 <개선행진곡>(레멘스), <로카라>(테오도르 뒤부아)가 연주됨.
- 32) 그밖에 <기미가요>, <대일본>(시모후사 하지메下總院一), <기도>(베버), <야영의 새벽>(스위스민요), <신의 영광>(베토벤)이 연주됨.

1935년 4월부터는 다양한 음악학교의 연주회, 보국음악주간 연주회와 더불어 도쿄방송, 오사카방송, 나고야방송의 전속교향악단, 신교향악단 등의 연주회가 중계되었다. 세계적인 지휘자 클라우스 프링스하임(Klaus Pringsheim, 1883-1972)이 이끌던 동경음악학교 관현악단은 말러, 브루크너, 바그너 등 독일 작곡가의 대규모 관현악곡과 바흐,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등 대규모 성악음악을 선보였다. 요제프 로젠슈토크(Joseph Rosenstock, 1895-1985), 펠릭스 바인가르트너(Felix Weingartner, 1863-1942), 고노에 히데마로, 야마다 고사쿠, 스기야마 와세오(1889-1952) 등이 지휘봉을 잡았던 신교향악단 역시 글루크의 오페라, 베토벤의 교향곡 등 대규모 작품을 연주했다.

한편, 오사카방송교향악단과 나고야방송교향악단은 랄로, 마스네, 드뷔시, 차이콥스키, 요한 슈트라우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특히 경성방송은 오사카방송국에서 기획한 “무용음악” 시리즈를 중계했는데, 오사카라디오오케스트라³³⁾가 음악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춤음악을 편곡하여 연주한 프로그램이었다. 오사카방송국의 또 다른 시리즈 프로그램인 “1836년 이후의 피아노곡”은 지휘자 레오니드 크로이처가 직접 연주와 해설을 담당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보국음악주간 음악회에서는 일본 작곡가의 작품을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었고, 의식창가와 ‘국민가’도 연주되었다. 오사카라디오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일본 작곡가의 국민가 연주회도 중계되었는데, 유행가 작곡가 겸 편곡자로 조선인들에게도 친숙한 에구치 요시와 핫토리 료이치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1935년-1937년에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일본 콘서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연주자/연주단체가 다양해지고, 레퍼토리 역시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 시기에 중계된 콘서트 프로그램의 레퍼토리에 비해 훨씬

33) 오사카라디오오케스트라(오사카방송관현악단)는 오사카방송교향악단과 함께 오사카방송의 전속악단으로, 오사카방송교향악단보다 가볍고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연주했다.

폭넓은 시기를 아우르는 대곡들이 연주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첫 번째 시기에 비해 일본 작곡가의 작품이 연주된 콘서트 중계가 늘었으며 그중에는 전쟁이나 국가주의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음 [표 3]은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방송심의회가 설치된 이후인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중계된 일본 콘서트의 목록이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중계된 일본 콘서트는 이전보다 그 빈도가 훨씬 줄어들었다. 또한 그 내용도 이전 시기와 달라져서, “바그너 탄생 백이십오년제”, “대일본연합합창단” 등의 대규모 콘서트를 중계하기도 했지만, “기원절”, “신무천황제”처럼 일본의 국가행사를 기념하는 음악회나 “만주국건국기념일 축전”처럼 정치적인 행사를 위한 음악회를 중계하기도 했다.

[표 3] 1938-1945년의 일본 콘서트 중계방송

일시	장소	작곡가	작품	연주자
1938 0211 (기원절)	동경음악학교 주악당		교향곡 <소화찬송> (昭和讚頌, 야마다 고사쿠) 외 2곡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야마다 고사쿠 동경방송관현악단 콩세르포푸레 대동경취주악단 대일본연합합창단
1938 0214	동경음악학교 주악당	하이든	오라토리오 <사계> 중	동경음악학교생도 동경음악학교관현악부 지휘 한스 슈비거
1938 0301	히비야공회당		<만주국시국국민가>	“만주국건국기념일 축전” : 소프라노독창 梁素馨 피아노반주 하라 에이코 합창 무사시노음악학교생도 피아노반주 카토오 토시코 (加藤敏子)
		푸치니	<투란도트> 중 '너의 냉정한 마음도'	
		이라디에르	<라 팔로마>	
		카푸아	<오 솔레미오>	
		이탈리아 민요	<산타루치아>	
		독일민요	<로렐라이>, <전우>	

1938 0502	동경 아오야마 (靑山)회관	베르디	<레퀴엠> 중	세이조(成城)학원 혼성합창단 코로·프롤라, 루나·코로, 유포닉·코러스, 일본방송교향악단 지휘 요제프 로젠슈토크
1938 0622	동경 시바쿠다마치 아시아영화제작 회사스튜디오	바그너	<로엔그린> 발췌곡	“바그너탄생 백이십오년제” : 대일본연합합창단, 일본방송교향악단 해설 및 지휘 야마다 고사쿠
1938 1005	니혼바시 미쓰코시			파이프오르간 : 키오카 에이조오 (木岡英三郎)
1938 1115	니혼바시 미쓰코시	바흐	<파싸칼리아>	파이프오르간
		아르카델트 /리스트	<아베마리아> 외 1곡	
1939 0118	니혼바시 미쓰코시	슈베르트	<독일미사>	대일본연합회합창단 동경방송관현악단 파이프오르간 오오나가 토라지(大中寅二) 지휘 아타나베 게키치 (矢田部勳吉)
		베토벤	<신의 영광>	
		헨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	
1939 0327	동경 가부키좌	비제	<카르멘> 제2장	보칼포아합창단 후지와라(藤原義江) 가극단
1940 0403	히비야공회당	오오부 마사오 (大夫正夫)	교향적 무용조곡 『우의(羽衣)』	“신무천황제” : 신교향악단 지휘 오오부 마사오
1943 0706	히비야공회당		독창, 합창, 관현악	“방송음악제” : 일본방송교향악단 일본방송합창단
			목금독주	
			쟁곡	
			수풍금독주	
1944 0805	히비야공회당 (제1방송)		경음악	동경방송관현악단 취주악단, 합창단
1944 1213	히비야공회당 (제1방송)		바이올린 협주곡	

기원절이나 신무천황제를 기념한 음악회에서는 일본작곡가의 창작곡이

연주되었던 반면, 1938년에 중계된 만주국건국기념일 축전에서는 <만주국시국국민가>와 더불어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와 칸초네, 독일민요 등이 연주되었다. 이러한 선곡은 독일과 일본이 체결한 반공산주의협정에 1937년 11월 이탈리아가 가입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³⁴⁾ 즉 1938년의 ‘만주국건국기념일 축전’은 만주국건국일이라는 계기를 이용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이벤트였던 것이다. <만주국시국국민가>와 더불어 중계된 독일과 이탈리아의 음악은 3국의 동맹관계를 청각적으로 감각하게 하는 것이었다.³⁵⁾

한편, 일본 콘서트의 중계는 클래식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클래식음악 콘서트에 비해 그 횟수는 현저히 적지만, 취주악단의 콘서트 역시 경성방송을 통해 중계되었다. [표 4]는 1933년 이후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일본의 취주악 콘서트 방송이다.

[표 4] 1933-1945년의 일본 취주악 콘서트 중계방송

일시	장소	작곡가	곡명	연주자
1934 1203	히비야공회당	에구치 요시 외	행진곡 <태평양> 외 6곡 ³⁶⁾	
1935 0728	모모다니 연주소	글린카 외	<마드리드 여름밤의 추억> 서곡 외 2곡 ³⁷⁾	“경음악의 오후” : 취주악
		스즈키 세이이치 (鈴木靜一) 외	<야자수의 달>, <아리랑야곡> 외 5곡	: 아코디온 연주 오사카시음악대 지휘 하야시 와타루 (林亘), 모리스 뉘푸르
1935 0822	모모다니 연주소	하이먼 외	<모나코의 황자 플로레스탄 1세>	오사카제즈오케스트라 지휘/편곡

34) [홀로코스트백과사전],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ko/article/world-war-ii-key-dates>, 검색일: 2025. 10. 20.

35) 정치적 동맹관계를 감각적으로 체화하게 하는 음악 편성은 1942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이경분, “열등한’ 일본인과 ‘신비화’된 일본제국: 나치제국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 19/4 (2010), 86쪽.

			외 4곡	쿠라시게 슌스케 (倉重瞬輔)
1935 0907	모모다니 연주소	바그너 레이썬 편곡	<탄호이저> 중 '행진곡' <아세아 포푸리>	취주악 : 오사카시음악대
1935 1109	모모다니 연주소	토마 베르디 비제	<미농> 서곡 <리골레토> 발췌곡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오사카시음악대
1935 1209	모모다니 연주소	슈베르트 시벨리우스 구노	<로자문테> 서곡 <핀란드리아> 송가 <파우스트> 발췌곡	오사카시음악대 지휘 하야시 와타루
1936 0224	모모다니 연주소	스타크 글루크 발트다이켈 차이콥스키	<창과 칼>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서곡 <스케이팅왕자> <이탈리아광시곡>	오사카시음악대 지휘 하야시 와타루
1936 1026	모모다니 연주소	엘가 베버 세토구치 토키치 (瀬戸藤吉)	<위풍당당행진곡> <오베론> 서곡 <군함행진곡> 외 1곡	취주악 : 연합합대 가령부부군악대 지휘 아마자키 후지토쿠 (山崎藤得)
1937 0504	나고야 마이즈루 (舞鶴)공원	주페 베버 육군호산학교 군악대	<시인과 농부> 서곡 <무도예의 권유> <제도> 외 1곡	취주악 : 육군호산학교군악대 지휘 오카다 쿠니이치 (岡田國一)
1937 0527	구단(九段) 군인회관	세토구치 토키치	<군함행진곡> 외 4곡	취주악 : 해군군악대 지휘 타카무라 키치 (高村吉)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34년-1936년 초까지는 오사카시음악대, 오사카재즈오케스트라 등이 취주악 편성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했다. 이 중에는 유행가 편곡을 통해 조선 청중에게 친숙한 음악어법을 구사했던

36) 그밖에 서곡 <환희>(케라벨라), 원무곡 <대양의 꿈>(가니그르), 군가 <황군의 노래>(동경음악학교), <군함행진곡>, <청원산귀>(해군군악대 편곡), 무용곡 <이집트인>(루이지니)가 연주됨.

37) 그밖에 행진곡 <옛친구(舊友)>(타이케), <과란풍 무곡>(샤르벵가)이 연주됨.

에구치 요시의 작품과, 영화음악과 대중음악계에서 활약한 스즈키 세이이치(1901-1980)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클래식음악을 편곡한 레퍼토리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1936년부터는 군악대의 연주회가 자주 중계되었는데, 엘가, 레하르, 주페, 베버 등 클래식음악의 편곡과 더불어 세토 구치 토키치(1868-1941)의 <군함행진곡> 등 소위 ‘국민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인 색채가 이전 시기보다 짙어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즉, 취주악 콘서트 중계는 초기에는 대중적인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화음악, 경음악, 클래식음악 편곡 등의 레퍼토리오로 구성되었다가, 193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악대 콘서트 중계로 변화되면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레퍼토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 국내콘서트의 중계

경성방송국은 이중방송이 시작된 1933년부터 국내에서 개최된 콘서트 무대도 다양하게 중계했다. 경성방송에서 중계된 국내 콘서트는 학교음악회, 음악콩쿠르, 대중음악콘서트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 표는 1933년부터 방송심의회가 설치된 1937년까지 경성방송에서 중계된 국내 콘서트 프로그램이다.

[표 5] 1937년까지의 국내콘서트 중계방송

일시	장소	작곡가	작품	연주자
1933 1014	경성공회당			경성보육학교 추계음악회 : 채선엽, 김원복, 이영세, 홍성유, 안보승, 홍난파 경성보육합창대
1933 1023	정동예배당	엔젤만 드보르자크	<무언가> 교향곡 <신세계> 중 ‘리르코’ 외 3곡 ³⁸⁾	파이프오르간 : 김영의

1933 1123	경성공회당			제10회 경성여자중등학교 음악회
1934 0502	경성공회당			명창대회
1934 0602	배재고보 강당			제1회 여자중등학교현상음악대회 (이화여자전문 주최)
1935 0922	정동예배당	프랑크	<아다지오>	파이프오르간
		헨델	<메시아> 중	
		파헬렐	<코랄전주곡> 외 2곡 ³⁹⁾	
1936 0211	부민관			경성 여자중등학교음악대회
1936 0404	분경 1정목 광장	레하르	<금과 은>	취주앙악의 밤 : 연습합대군악대
		해군악대	<위대한 무인>	
		에구치 요시	서곡 <가국의 환희>	
		육군군악대	쟁곡 <호접무> 외 4곡	
		본 윌리엄스 리스트	조곡 <영국민요집> <헝가리광사곡> 2번	
1936 0607	삼청공원			초여름밤의 음악
1936 1014	부민관			제1회 부내 초등학교연합학예회
1936 1214	모리스홀	헨델	<라르고>	전기오르간(하문드오르간) : F. S. 부—쓰 ⁴⁰⁾
		멘델스존	<봄노래>	
			<바이올린협주곡> 중 '안단테'	
		구노	<아베마리아>	
바그너	<저녁별>	<탄호이저> 중 '행진곡'		
1937 0211	부민관			경성 여자중등학교 음악회
1937 0417	부민관		<도라지타령>, <봄이 왔네>, <아리랑>, <방아 타령>, <양산도>	조선재즈가요 ; DK짜즈밴드 노래 강홍식, 이화자
1937 0503	단성사			롭프·아이·앤드·히즈·오케스트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1937년까지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국내콘서트에는 명창대회 같은 전통음악 연주회도 포함되어 있었고,⁴¹⁾ 1934년 이화여자전문이 주최한 제1회 여자중등학교현상음악대회 등 음악콩쿠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콩쿠르에는 루시여고보, 호수돈여고보, 이화여고보, 영생여고보, 승의여고보, 배화여고보 등에서 참가하여, 지정합창곡과 독창, 피아노독주, 바이올린독주, 합창곡을 연주했다.⁴²⁾ 이와 더불어, 경성여자중등학교음악회, 초등학교연합학예회 등 학교연합음악회도 중계되었다. 1936년 부민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부내초등학교연합학예회⁴³⁾에서는 경성의 다양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창가와 동요, 그리고 일본의 의식창가를 연주했다.⁴⁴⁾

38) 그밖에 <할머니의 노래>(폴크망), <행진곡>(페트랄리), <스카치 포입>(맥도월)을 연주함.

39) 그밖에 <전주곡 코랄 푸가>, <‘내가 만일 새이면’에 의한 변주곡>, <환상곡>(오오나카 토라지大中寅二), <아다지오>(프랑크), <마리아의 자장가>(레거)가 연주되었다.

40) 신문에 게재된 편성표에는 남편인 J. L. 부쓰가 연주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연주자는 플로렌스 부쓰였다.

41) 명창대회는 개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계되었다. 서재길, “JODK 경성방송국의 설립과 초기의 연예방송,” 『서울학연구』 27 (2006), 167쪽; 신혜순, “모던열풍 속 혼종의 음악공간 경성공회당,” 『경성의 소리문화와 음악공간』, 223쪽.

42) 지정합창 <꽃피는 시절>(핀수퇴 작곡), 피아노독주 <원무곡>(듀란트 작곡, 김명숙 연주), 독창 <목양가>(케리 작곡, 박옥주 연주), 피아노독주 <원무곡 스타이리니>(알렌하움트 작곡, 김영신 연주), 독창 <봄노래>(비숍 작곡, 조성녀 연주), 바이올린독주 <가보트>(베토벤 작곡, 정애라 연주), 합창 <깃분 유월>(빈센트 작곡), 피아노소나타 (모차르트, 김영실 연주), 독창 <여름바람>(비숍 작곡, 박봉희 연주), 피아노독주 <론도블레스크>(쿨리 작곡, 김수영 연주), 독창 <소야곡>(슈베르트 작곡, 정애라 연주), 합창 <분향에 감니다>(드보르자크 작곡).

43) 이태원보통학교, 장훈보통학교, 아현여자보통학교, 동덕여자보통학교, 협성보통학교, 화산보통학교, 계산보통학교, 보인보통학교, 공옥여학교, 성신여학교, 신명학교, 균명학교, 배화여자보통학교, 흥인배재학교, 가명보통학교, 광희배명학교, 매곡보통학교, 화광보적학교, 함홍보통학교, 계리보통학교, 삼흥보통학교 등이 참가했다.

44) <양양범벅곡>, <밤한톨이 댁대굴>, <삼월삼진>, <물방초의 그늘>, <보름달>, <달마중가기>, <普語り>, <秋の時雨>, <秋草>, <달과별>, <칠새>, <뜨리도리짝

이 시기에 중계된 국내음악회 중 클래식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콘서트는 많지 않았지만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정동예배당의 피이프오르간 연주회와 모리스홀의 하몬드오르간 연주회로, 김영의와 플로렌스 부츠가 앵겔만과 드보르자크, 프랑크, 헨델, 파헬벨, 멘델스존, 구노, 바그너 등의 작품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특히 하몬드오르간은 플로렌스 부츠가 1936년 안식년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면서 직접 들여온 것으로,⁴⁵⁾ 경성방송은 부츠의 하몬드오르간 연주를 중계함으로써 조선의 청중들이 새로운 음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방송심의회가 설치된 이후인 1938년부터는 대중음악이나 경음악 콘서트가 중계된 횟수가 늘어났고, 여자중등학교음악대회, 팔도명창대회 등도 종전과 같이 중계되었다. 다음은 1938-1945년에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국내음악회의 목록이다.

[표 6] 1938-1945년의 국내콘서트 중계방송

일시	장소	작곡가	작품	연주자
1938 0222	부민관		<남자의 마음>, <장미색탄식>, <상사의 하로밤>, <강동천타>, <조선팔경>, <바람아 광풍아>, <북방소식>, <여자의 순정>, <내곶죽에 내가 마젓소>, <그늘에 우는 천사>, <봄사건> 춘극 『분홍빛하춤』	대중연예의 밤 : 임옥매, 조향심, 선우일선, 김인숙, 박향림, 김해송 반주 DK관현단
1938 0226	부민관			경성 여자중등학교음악대회

짜궁>, <멤멤>, <피꼬리>, <안즌방이꽃>, <수차>, <탓고나>, <앵정결별> 등이 연주되었다.

45) 최영주, “한국 근대 음악문화 형성에서 오르간의 수용과 역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25), 79쪽.

1938 0501	조선일보사엽 가설극장		농악	
1938 0504	부민관			팔도여류명창경연대회
1938 0529	동양극장		<하와이안댄쓰곡>, <초특아크도빠틱>, <독창 3곡>, <아리랑>, <안래절>	셀비안관현악
1938 1006	부민관		아악 : 대금독주 <유초산지곡>, 협악 <장춘불로지곡>, 처용무 <수제천>, 합악 <海ゆがは>	이왕직아악부 지휘 함화진
1939 0211	부민관			여자중등학교음악대회
1939 0216	부민관		<창부타령> 외	부민관개국십이주년기념회 : 김정숙, 이화자 반주 C·M·C·밴드
1939 0301	단성사		<도화강>, <북경에서>, <경운대고>, <광동음악>, <漁光曲>	북경빠라이에타 : 북경무악원
1939 0608	부민관	김세형	바이올린독주 <환상곡> Op.32	창작 작곡발표 대음악제 제1야 (동아일보사주최) : 바이올린 계정식 피아노 그레이스 우드
			소프라노독창 <너는 어데로>, <발자취>	독창 유부용, 피아노 김메리
		홍난파	관현악 <죽흥곡>, <소선전곡>, <동양풍의 무곡>	경성교향관현악단 지휘 홍난파
1939 0609	부민관	김재훈	바이올린독주 <비가>, <프렐류디움 운트 알레그로>	창작 작곡발표 대음악제 제2야 : 바이올린 안병소 피아노 김경훈
		안기영	소프라노독창 <작별>, <꿈조차>	소프라노 이관옥 피아노 김경훈

			속여세라>, <오 나의 마음을>, <마음의 등대>, <부끄러움>	
		김세형	피아노독주 <주제와 변주곡> Op.34	피아노 박현숙
		임동혁	관현악 <희유곡> (서주, 행렬, 영탄조, 무도조, 광시곡)	경성교향관현악단 지휘 임동혁
1939 1105	정동극장		관현악과 합창	
1939 1209	경성공회당		<울티야요>, <날다려가소>, <반달뜨는밤>, <사나이 가는길>, <오, 처량한 트로이카>, <친연도중>, <낙화 유정>, <사랑도 팔자 라오>, <마지막 혈시>	황금심, 현정남, 남일연, 경성방송관현단
1940 0211	부민관			경성부내 여자중등학교 음악회
1940 0213	부민관		<기원절참가>, <황화만년지곡>, <만과정식지곡>	'아나운서와 아악' : 이왕직아악부 지휘 장인식
1940 0330	부민관	도쿠야마 렌 (徳山隼), 타키타 키쿠에 (瀧田菊江)	<경방단가>(警防團歌), <조국의 가성>, <해변의 노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사구라신세계>, <선부의 노래>, <수염에 미련은 없것만>	"방공(防空)의 오후" (조선방공협회주최) : 경성방송관현단 지휘 타키타 키쿠에
1940 0405	태화기독교 사회관	바그너 슈만 슈베르트	<저녁별> <트로이메라이> <아베아리아>	하문드오르간독주 : 김경현 해설 아나운서 송진근
1940 0616	부민관	브람스	<헝가리무곡> No. 5, 6	신교향악단 지휘 로젠슈트크

		요한 슈트라우스	<무궁동>, 오페라 <박쥐> 서곡	
1944 0211	부민관 (제1방송)			경성여자중등학교 음악대회
1945 0529	부민관			조선음악연주회 일본음악협회 주최 이왕직아악부 특별출연

이 시기에는 또한 부민관개관 12주년기념 음악회, 조선방송공사협회가 주최한 ‘방공(防空)의 오후’ 등의 행사가 중계되기도 했는데, ‘방공의 오후’ 행사에서는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도쿠야마 렌, 타키타 키쿠에가 작곡한 일본노래들이 연주되었다.

한편, 1938년 10월 6일과 1940년 2월 13일에는 부민관에서 개최된 이왕직 아악부의 연주회를 중계했는데, 1938년의 음악회에서는 <유초신지곡>, <장춘불로지곡>, <수제천> 같은 전통아악과 함께 일본음악 <우미유카바(海ゆかは)>를 연주했고, 1940년에는 전통아악인 <만파정식지곡>과 더불어 <기원절창가>, <황화만년지곡>⁴⁶⁾ 같은 프로파간다적인 음악을 연주했다.⁴⁷⁾

사실 이왕직아악부의 연주는 이중방송 초기부터 정규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경성방송의 아악 프로그램은 창극조나 민요 같은 대중적인 조선악과 더불어 ‘고급’ 조선음악을 국내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46) 일본의 기원 2600년을 기념하여 1939년 아악수 김기수가 작곡한 곡으로 천황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김명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방송활동: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30 (2002), 158쪽; <황화만년지곡>은 1940년 2월 13일 초연된 이후 광복 직전까지 일본의 기념일마다 연주되었고 라디오로 실황 중계되었다. 이수정, “일제강점기 궁궐 안팎의 음악: 이왕가의 음악을 중심으로,” 『경성의 소리문화와 음악공간』, 57-58쪽.

47) 1940년의 연주회에 대한 기사에서는 신작봉축곡인 <기원절창>, <황기이천육백년송축가>, <황화만년지곡>을 연주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봉축아악 조선방송협회 주최, 부민관에서,” 『조선일보』 1940. 2. 11.

음악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던 이해구는 조선방송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이왕직 장관에게 보내 월 1-2회 이왕직아악부의 연주를 방송했다.⁴⁸⁾ 경성방송의 아악 프로그램은 양악보다 조선악을 선호하는 청취자층에게는 고급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고, 따라서 더 좋은 조선음악을 청취자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편성주체의 계몽적 의도를 읽을 수 있는 편성이었다.

그러나 1938년과 1940년에 중계된 이왕직아악부의 부민관 연주회는 정규프로그램으로 방송되었던 연주와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었다. 1938년의 연주회는 이습회 6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해마다 정례적으로 있었던 연주회인 데다, 이왕직아악부가 공개연주회를 선보인 것이 처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⁴⁹⁾ 언론에서는 이 연주회를 이례적인 이벤트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⁵⁰⁾ 이 연주회가 이왕직아악부의 다른 공개연주회와 차별화된 점은 조선의 아악부가 일본음악인 <기미가요>와 <우미유카바>를 처음으로 공개된 무대에서 연주했다는 것이었고, 언론 역시 이 점에 주목하였던 것이다.⁵¹⁾ 한편 1940년의 연주회는 일본의 기원 2600년을 기념하는 무대⁵²⁾로서, 아악부가 천황을 찬양하는 <황화만년지곡>을 작곡·초연

48) 박용구, “일제하 라디오 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151쪽; 이왕직아악부의 연주는 경성방송의 아나운서와 기술부 기사가 아악부에 직접 가서 중계하는 형태로 방송되었다. 김명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방송활동: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47쪽.

49) “이번 아악연주회가 제1회인 듯이 모두 인식하는 모양이나 기실은 대정12년 경성공회당에서 아악연주회가 잇은 것을 기억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종태, “조선고래아악의 사적 소고,” 『동아일보』 1938. 10. 7.

50) “이왕직아악부에서는 아악공개연주회를 오는 시월육일 오후 일곱시부터 부민관에서 개최한다는데 당일은 南(미나미)총독을 비롯하여 내빈 이천여명을 초대하리라 하며 방송국에서는 아홉시부터 삼십분동안 이것을 전조선에 중계방송할 터이라 한다.” “고전예술의 정화 아악공개연주회,” 『조선일보』 1938. 10. 1.

51) 당시 아악부 음악 촉탁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종태가 <기미가요>와 <우미유카바>를 아악으로 편곡하고 지휘하였다. 이수정, “일제강점기 궁궐 안팎의 음악: 이왕가의 음악을 중심으로,” 55-56쪽.

52) 음악회의 명칭은 ‘기원 2600년 봉축 아악과 가무의 밤’이었으나, 중계 편성표에는 ‘아

했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 연주회였다. 즉 경성방송이 두 차례에 걸쳐 중계한 이왕직아악부의 부민관 공연은 조선의 전통아악과 일본음악을 함께 연주한 무대로, 1938년부터 내선일체를 위한 문화적 기획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중계된 국내 콘서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방송은 이틀에 걸쳐 개최된 “창작작곡발표대음악제”였다. 이 콘서트는 임동혁, 채정근, 이해구가 조선음악계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⁵³⁾ 홍난파, 김재훈, 안기영, 김세형, 임동혁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신진작곡가들의 다양한 창작곡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음악제에서 연주된 창작곡은 이전부터 연주되어 온 곡과 초연작품이 혼재되어 있었지만,⁵⁴⁾ 독창곡부터 바이올린 독주곡, 피아노독주곡, 관현악곡 등 다채로운 장르와 편성을 보여주었다. 즉 이 음악회는 국내 저명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함으로써 작곡계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내 청취자의 관심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또한, 1940년의 신교향악단 내한공연의 중계도 주목할 만한 방송으로, 신교향악단은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등의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신교향악단의 내한공연은 1939년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로젠슈토크가 함께 내한한 것은 1940년이 처음이었다. 1939년 5월 신교향악단의 내한공연을 앞둔 시점에서 작성된 기사에서는 로젠슈토크가 새로운 지휘자로 영입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⁵⁵⁾ 실제로는 로젠슈토크 대신 사이토 히데오가 지휘봉을 잡았다. 따라서 로젠슈토크가 이끄는 70명의 단원이 총동원된 1940년의 내한공연은 조선의 엘리트층과 서양음악애호가들에게

나운서와 아악'으로 안내되었다.

53) 이해구, 『만당 음악편력』 (서울: 민속원, 2007), 56쪽.

54) 예를 들어, 김세형의 <환상곡>은 1933년에 미국에서 초연되었고, 홍난파의 <동양풍의 무곡>은 1931년에 발표된 바 있다.

55) “신교향악단도선공연,” 『매일신보』 1939. 5. 16.

‘진짜 유럽 음악’을 들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⁵⁶⁾ 이러한 대중적 관심을 반영하듯 경성방송국에서도 신교향악단의 두 번째 콘서트를 중계방송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경성방송국은 지역방송국이 설립되기 이전부터도 각 지방 도시에서 개최되는 음악회를 꾸준히 중계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콘서트 중계방송의 대부분은 그 지역의 학교 아동들이 출연하는 음악회였기 때문에 주로 창가와 동요를 레퍼토리로 했다. 1936년과 1937년에는 부산과 평양에서 개최된 대중음악 콘서트를 중계했는데, 조선 유행가와 일본 유행가를 함께 연주했다. 한편, 평양과 함흥에서 개최된 선양합주 연주회, 창극조 대회를 중계하기도 했다.

[표 7] 1933-1945년의 국내 지역 콘서트 중계방송

일시	지역	작품	연주자
19331115	대구공회당	창가	대구심상소학교, 대구본정심상소학교 대구봉산심상소학교
19340924	진남포공회당	창가와 대화	풍정공립보통학교아동 가덕공립보통학교아동
19341006	평양금천대좌	<집신작>, <할머니의노래>	경임공보 육학년 여아
		<희망>	광성보교 육학년
		<가로>	광성합창대
		<스무하로밤>	기림리보교 이학년
		<엽인> 외 일본곡	평양여자고보 2-4학년생도
19341028	대구공회당	<가을의 경치> (秋のながめ)	평양여자고보 사학년
		<달나라>, <가을밤>, <물방아>, <뽕엿는 사슴>, <횃파람>, <제비남매>, <씨를 심어라>.	충신학원아동 지휘 및 반주 김용변

56) 이경분, “문화정치적으로 본 신교향악단의 경성연주회(1939-1940),” 139쪽.

		<달밤의 사막>, <가을>, <참새의 춤>	
19360921	부산공회당	<항구의 여자>, <東京娘>, <강남애상곡>, <船頭可愛いや>	박수덕, 김기태, 김종재 악우회관현단
19370604	평양부공회당	유행가 : <イ愛の小窓>, <청춘일기>, <イ無情の夢>, <心の白鳥>, <ああそれなの>, <に人妻椿>, <東京娘>, <青い脊廣で>	김연월, 김복희, 안명옥, 최명주
		조양합주	기생권번선양합주단
19390824	함흥동명극장		창극조대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성방송에서 중계된 국내 콘서트는 초기에는 학교음악회, 음악경연대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조선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조망하려는 계몽적 의도로 읽을 수 있다. 1937년 이후로는 대중음악 콘서트의 비중이 커졌는데, 조선어 유행가와 일본어 유행가를 함께 연주했고, 특히 <마지막 혈시> 같은 군국가요를 레퍼토리에 포함하는 등 내선일체와 군국주의라는 프로파간다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각 지방도시에서 개최된 음악회도 선별적으로 중계되었는데, 주로 지역 아동들이 부르는 동요, 창가, 의식창가 등이 주된 레퍼토리였다. 그런가 하면 클래식음악 콘서트의 빈도는 높지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대형콘서트까지 중계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무대극 중계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의 공연계에서는 악극의 인기가 여타의 무대극 장르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1935년 동양극장이 개관하고 각 음반사마다 전속악극단을 운영하면서부터 악극의 인기는 날로 더해갔다.⁵⁷⁾

이러한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듯 경성방송국에서도 악극에 주목하여, 특히 동양극장의 개관기념공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동양극장의 악극무대를 중계하였다. 특히 동양극장 건립의 기반이 되었던 배구자악극단의 공연은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버라이어티쇼와 악극이 결합된 형태였고, 1936년의 공연에서처럼 ‘소녀가극’이라는 명칭을 내세우기도 했다.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동양극장 공연은 배구자악극단의 무대처럼 오락적 성격이 강한 공연뿐 아니라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 <배비장전>, <춘향전>, <심청전>, <숙영낭자전>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청중의 음악적 취향을 고루 만족시키고자 했던 편성주체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다음 표는 1933년 이후 경성방송에서 중계된 무대극 공연의 목록이다.

[표 8] 1933-1945년의 무대극 중계방송

일시	장소	작가/작곡가	작품	극단/연주자
1935 1111	동양극장	배구자 각색	<도라지타령>, <다이나>	배구자악극단
			악극 <명랑한 쌍둥이>	독창 강덕자
1935 1206	동양극장		유행가 <애상의썰매>, <고향의 처녀들>	최남금
			연담 <감효대명>	현철
			신민요 <나화삼천>, <룻노래>	노벽화
1936 0126	동양극장		<춘향전>	청춘좌

57) 이은진, “일제강점기 경성의 극장과 대중음악: 통제와 균열,” 『경성의 소리문화와 음악공간』, 296-307.

1936 0210	동양극장		<배비장전>	조선성악연구회
1936 0509	동양극장		소녀가극 <마음의 등불>	배구자악극단
1936 0709	오사카 (제1방송)		<월조생도>	다카라즈카 소녀가극단
1936 0926	동양극장		<춘향전>	조선성악연구회
1936 1216	동양극장		창극 <심청전>	
1937 0102	부민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1937 0213	부민관		<춘향전> 제1막	
1937 0228	동양극장		<숙영낭자전>	조선성악연구회
1939 0409	부민관		<춘향전>	극연좌
1939 0618	다카라즈카극장 (제1방송)		<화조생도>	다카라즈카 소녀가극단
1939 0923	평양금천대좌	임선규	<남아행장기>	
1940 0214	평양금천대좌		<춘향전>	극단 고희
1940 0324	부민관		<춘향전>	
1941 0829	부민관	서항석 작/ 안기영 곡	가요극 <견우직녀>	콜롬비아 가극단
1942 0222	부민관		<삼대>	극단 아랑
1942 0405	부민관		무용극 <북진대>(北進隊)	
1942 1031	부민관		<영화>(永花)	극단 고희
1943 0731		서항석 작/ 형석기 곡	<심청>	반도가극단
1945 0104	경성중앙극장		가극 <やじきた(弥次喜夕) 出征記 (즐거운 출정기)>	조선악극단
1945 0317	경성명치좌		가극 <도화만리>	조선악극단

1945 0418	경성중앙극장		무용극 <산하유정>	극단 아랑
--------------	--------	--	------------	-------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극장이 폐관한 1939년부터는 주로 부민관의 무대극공연이 중계되었다. 1940년대에 중계된 부민관 공연에는 정극과 더불어 무용극, 악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중 특히 콜럼비아극단의 <견우직녀>와 반도가극단의 <심청> 공연이 주목할 만하다. 이 두 작품은 전통적 서사와 민요풍 음악을 사용한 ‘향토가극’으로, 대중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었다. 총독부의 내선일체 정책이 심화되었던 1940년대에 ‘조선성’을 전면에 드러낸 향토가극이 공연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신체제하의 정책방향인 ‘건전오락’ 담론에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⁵⁸⁾ 신체제에서 표방한 건전오락이란 시국적 내용을 쉽고 경쾌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했고, 조선어로 진행되면서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향토가극은 이러한 목적에 더없이 유용한 것이었다.⁵⁹⁾ 또한 일제 당국은 향토가극이 가진 ‘조선성’을 조선인의 민족성이 아닌 일본에 속한 지역으로서의 향토성으로 인식했다. 이는 1939년 조선악극단의 일본 공연에서도 강조된 것으로, 조선악극단은 향토성으로서의 조선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인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⁶⁰⁾ 다시 말해, 향토가극이 가진 조선성과 대중성은 일제당국에게 있어 국책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유용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어 방송인 제1방송에서는 다카라즈카소녀가극단의 공연을 일본방송으로부터 중계함으로써 재조일본인의 취향을 고려한 편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장 많이 중계된 무대극공연이 <춘향전>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배구자악극단의 버라이어티쇼와 소녀가극, 창극, 향토가극, 다카

58) 유인경, “근대 ‘향토가극’의 형성과 특질 연구: 안기영 작곡 가극 작품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19 (2009), 246쪽.

59) 이화진, “전시기 오락담론과 이동연극,” 『상허학보』 23 (2008), 88-105쪽.

60) 이은진, “일제강점기 경성의 극장과 대중음악: 통제와 균열,” 315-316쪽.

라즈카소녀가극단의 공연, <춘향전> 등이 무대극 중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성방송의 편성주체가 무대극 중계에 있어서는 대중적 인기와 청중들의 다양한 취향을 우선시했음을 읽을 수 있다.

한편, 1942년에 중계된 무용극 <북진대>(北進隊)나 1945년에 중계된 조선악극단의 <즐거운 출정기>와 <도화만리>는 대본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제목으로 미루어보아 참전을 중용하거나 대동아공영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무대공연 중계방송은 조선인 청취자의 취향을 고려한 편성에서 시작하여, 그 대중성을 프로파간다적인 내용으로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교환방송

경성방송에서는 일본방송의 콘서트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본방송국의 ‘국제교환방송’ 프로그램도 중계했다. 교환방송은 해외의 방송국과 연계하여 하나의 특집 프로그램, 특히 연주 프로그램을 번갈아 진행하는 형태로,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일본방송국의 교환방송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방송국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5년까지 경성방송에서 중계된 교환방송은 일본방송국과 독일과의 교환방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934년 당시 독일 제국음악원의 원장을 맡고 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생일을 기념한 교환방송에서는 동경음악학교 학생들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16부합창 <Der Abend>, <Hymne>을, 베를린교향악단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연주하면서 음악적 교류를 과시하였다. 또한 1935년에는 라이프치히교향악단이 연주한 바흐의 <푸가의 기술>이 독일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등 주로 독일과 이탈리아와의 교환방송이 중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9] 1933-1945년의 교환방송

일시	장소/방송사	작곡가	작품	연주자
1934 0624	암스테르담방송 (제1방송)	스벨링크	<시편 150번> 중 '시인의 시'	수유라카시토롬 합창단 지휘: 귀페르스
		올란도 디 랫소	<메아리>	
1934 1030	동경음악학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Der Abend>, <Hymne>	일독교환국제방송 슈트라우스탄생 칠십년기념음악회 : 동경음악학교생도
	베를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935 0213	신의주 평안북도청		<국경경비의 노래>, <암록강절>	평안북도 경찰관유지
	경성		<국경의 노래>, <백두절>	
1935 0728	독일	바흐 / 볼프강 그레체르 편곡	<푸가의 기술>	바흐명곡국제방송 : 라이프치히교향악단 지휘 한스 와이바흐 오르간 헤르바르트 콜 첼발로 윌라 쉘라프리드 / 벨드 삼라
1936 0419	만주		<당신은 나의 행복의 별이 예요>, <유혹>, <아나 베라> 외 6곡	조만교환방송 : R·A·M·자스밴드 지휘 다이로프
1936 1004	만주 캐피탈홀		무용음악	조만교환방송
1937 0411	하얼빈 철노구락부	하이든	<천지창조>	조만교환방송 : 러시아혼성합창단
1937 1201	하얼빈		만주신가요 : <추강역별>, <월명지아>, <아래향>, <호봉우내요>, <소군원>, <감우방창>	리상란 백성관현사 편곡 및 지휘 간바라 야스오(神原恭男)
1938 0301	신경		만주어가요접속곡	신경라디오오케스트라
1938 0808	로마	몬테베르디	<오르페오> 중	일이(日伊)교환방송 : 지휘 페르난도 크스티바티
		벨리니	<노르마> 서곡	

1939 0513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로마	베토벤 베르디	서곡 <헌당식> 가극 두 장면(독창)	베를린방송교향악단
1939 0515	영국 런던	엘가	<위풍당당행진곡>	영국방송협회관현악단
1940 0208	평양		선양합주(조선가요풍경)	대만(對滿)교환방송 : 평양기생권변선양합 주단 편곡/지휘 김면균
1941 1214	이탈리아 로마			일이교환국제방송 : 테너 가리비아니 소프라노 가레나레 EAR 관현악단 지휘 모레리
1942 0604	자카르타 (바타비아)		자바민요 취주악	포로(俘虜)군악대 지휘 이이다 노부텐 (飯田信天)

표에서 볼 수 있듯, 경성방송국에서 중계된 일본방송의 교환방송은 유럽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클래식음악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경성방송의 편성주체가 일본방송의 유럽 선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성방송국에서 중계한 일본방송국의 교환방송이 독일, 이탈리아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독일-이탈리아-일본의 동맹적 관계를 문화적 감각으로 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독일과 이탈리아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정전'의 형성에 있어 방송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한편, 1934년 만주방송의 대용량 출력이 가능해지고 이중방송이 실시된 이후인 1936년부터는 경성방송과 만주방송과의 '조만(만선)교환방송'이 본격적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⁶¹⁾ 특히 1937년에는 조선인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 겸 가수 리상란의 단독무대가 중계되었는데, 이 콘서트에서 리상란은 <아래향> 등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유행했던 '만주신가요'를 선보

61)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방송," 『만주연구』 10 (2010), 147-149쪽.

였다.⁶²⁾ 한편 1940년 평양에서 중계된 대만(對滿)방송에서는 평양기생 권번선양합주단이 ‘조선가요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선양합주를 연주하는 등 조선음악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조만교환방송에서는 당시 만주국에서 유행하던 일본의 대륙물이나 경음악이 방송되거나, 조선의 유행가와 전통음악을 방송하였다. 조만교환방송은 일본의 ‘외지(外地)’ 간의 방송교류라는 의미에서 일제 당국의 입장에서 ‘제국의 통합’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⁶³⁾

한편, 태평양전쟁에 돌입한 이후인 1942년에는 인도네시아 민요와 취주악을 자카르타로부터 중계하면서 대동아공영의 프로파간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1939년에 설치된 동아전기통신협의회와 동아방송협의회가 추진한 ‘동아중계방송’의 일환으로 편성된 교환방송이었다. 동아중계방송은 일제의 전파 네트워크를 일본방송국의 휘하에 조선, 만주, 대만 및 남양 각지로 확장시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고자 한 기획이었다.⁶⁴⁾ 동아중계방송의 기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패전하면서 실효적인 결과를 낳지는 못했지만, 경성방송국에서 이러한 기획이 특히 음악연주를 중계하는 형태로 시도되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성방송국에서 중계한 교환방송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첫째, 일본과 유럽 간의 국제교환방송을 중계한 것은 ‘제국의 근간’⁶⁵⁾인 일본 및 일본 음악계가 가진 문화 권력을 부각시킴

62) 리상관은 만주영화협회를 통해 활동하면서 일본, 만주국, 조선의 문화권을 아우르는 상징이 되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의 영화배우들과 친분이 있었는데, 1940년 9월 조선을 방문했을 때는 문예봉, 김신재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향란-문예봉-김신재: 만주국 명우를 환영하는 좌담회,” 『삼천리』 1940년 9월호, 148쪽.

63)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방송,” 148쪽.

64) 그 대표적인 예가 1943년 1월에 방송된 동아중계방송 프로그램 “대동아의 봄”으로, 일본방송의 진행 하에 조선, 만주, 대만 및 남양 각지에서 새해 인사와 자국의 풍경을 녹음한 레코드가 릴레이식으로 중계된 프로그램이었다.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방송,” 149-150쪽.

65)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방송,” 129쪽.

으로써 일본의 우위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둘째, 조선과 만주 및 동남아와의 교환방송은 조선, 만주, 동남아에 이르는 제국의 영역을 청각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경성방송국에서 중계한 교환방송 프로그램은 여타의 음악공연 중계방송과 마찬가지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8년 이후, 특히 1940년 이후부터 프로파간다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성방송이 중계한 정치적 음악행사 목록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10] 1933-1945년의 정치적 음악행사 중계방송

일시	장소	작품	연주자
1933 1229	동경 (제1방송)	황태자전하어탄생봉축 음악행진 실황	
1933 1230	동경 일본청년관 (제1방송)	황태자전하어탄생봉축 육해군군악대합동대연주	육군호산학교군악대 지휘 오카다 쿠니이치(岡田國一)
1937 1110	명치신궁외원 경기장	<기미가요>, <대일본음악 주간가>, <일본청년가>, <공군의 위력>	'국민정신총동원보고음악주간 연합여자음악체육대회' 육해군군악대 취주악
1937 1226	히비야공회당	애국행진곡 발표회	
1938 0116	평양육군병원 (제1방송)	창가와 유희, 신민요, 단패, 가요곡, 관현악	경성유치원, 광명월, 이옥란, DK관현악단
1939 1015	평양부공회당	상병장병위문 서선여자중등학교연합음악회	
1939 1215	히비야공회당	이천육백년국민봉축가발표회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937년까지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정치적 음악행사는 일본에서 개최된 것으로, 주로 제1방송에서 중계되었다. 그러나 1938년부터는 평양육군병원과 평양부공회당에서 개최된 군인위안 음악회를 중계했는데, 이 위문음악회에는 유치원 원아부터 여자중등학교 학생,

유명여가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즉 총후의 여성과 제2국민으로서의 아동에게 군인을 위안하는 역할이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5. 나가며: 선망과 계몽에서 프로파간다로

경성방송국은 일본에서 개최된 콘서트 중에서 신교향악단과 방송국 전속교향악단, 유명 음악학교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대규모 클래식 레퍼토리의 콘서트를 선별하여 중계하였다. 경성방송이 중계한 일본방송국의 콘서트 프로그램은 조선의 청중에게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음악 레퍼토리를 보다 좋은 연주로 들려주겠다는 편성주체의 계몽적 의도를 보여준다. 이는 ‘선진적’인 서양 클래식음악을 통해 조선의 음악계를 계몽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동시에 유럽음악에 대한 선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편성주체의 이러한 유럽 선망은 유럽인이 지휘하는 일본 교향악단의 연주를 중계하는 것으로 구현됨으로써, 조선보다 선진적인 음악문화를 가진 일본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일본 콘서트 프로그램은 조선의 양악계가 뒤쳐져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엘리트층과 양악애호가들에게 일본에 대한 선망을 심어줌으로써, 일본의 문화 권력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⁶⁶⁾

경성방송의 계몽적 의도는 국내콘서트의 중계 프로그램에서도 읽을 수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클래식음악 콘서트가 많지 않았던 시기부터 클래식 레퍼토리로 구성된 오르간 연주 등의 콘서트와, 다음 세대의 음악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출연하는 학교음악회와 콩쿠르 등을 중계하면서, 조선의 청중이 양악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과 유럽 간의 교환방송을 조선 청중에게 중계한 프로그램은 일본 콘서트의 중계방송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동경을 강화하는 결과로

66) 이경분, “일제시기 서양음악문화와 일본인의 영향,” 172, 175쪽.

이어졌다. 선망의 대상인 유럽과 ‘음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문화적 위상은 조선의 엘리트들과 서양음악애호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국제교환방송은 1938년 이후 독일 및 이탈리아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동맹관계를 음악적 교류의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문화적 감각으로 체화하게 만들었다.

유럽음악에 대한 선망을 일본에 투사함으로써 일본의 문화 권력을 동경하게 된 조선의 엘리트들은 1938년 이후 변화된 경성방송국의 음악 편성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38년 이후부터 경성방송의 음악공연 중계방송은 정책선전을 위한 편성으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취주악 콘서트 중계 프로그램은 1938년 이후 군악대가 연주하는 군가와 국민가로 이루어져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이왕직악부의 부민관 공연 중계방송은 고급문화로서의 전통음악을 알리려는 계몽적 의도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유된 사례이고,⁶⁷⁾ 악극의 중계방송은 대중성을 반영한 편성이었지만, 전시체제기에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의 악극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조만교환방송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중계방송은 대동아공영의 전과 네트워크를 ‘동아방송’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처럼 경성방송에서 중계한 음악공연 프로그램은 정치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전유되었다. 경성방송 편성주체의 계몽적 의도와 그 근저에 깔린 유럽음악에 대한 선망이 결과적으로는 일본 클래식 음악계에 대한 선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성방송의 음악공연 중계방송은 일본의 우위를 대중에게 감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⁶⁸⁾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감각은 프로파간다로 변질된 음악공연 중계방송

67) 박용규, “일제하 라디오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166쪽.

68)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방송,” 129쪽.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적 기제는 해방 이후 미국 음악계에 대한 선망과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프로파간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음악에 대한 위계적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참고문헌

1차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조광』, 『중앙』, 『조선일보』.

단행본

김지선. 『경성방송국 음악방송편성 총목록집』 상, 하. 서울: 민속원, 2023.

박기성. 『한국방송사』. 대구: 원명당, 2014.

이혜구. 『만당 음악편력』. 서울: 민속원, 2007.

신혜승 외. 『경성의 소리문화와 음악공간』.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2.

학위논문

공애희. “근대 ‘복합 문화공간’의 탄생과 ‘취미’의 이중연출: 부민관 음악회를 중심으로(1935~1945).”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8.

김희진. “한국의 근대 연주회장 연구: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1.

송소라. “20세기 창극의 음반·방송화 양상과 창극사적 의미.”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7.

조윤영. “경성의 음악회(1920-1935): 식민지 일상과 근대의 경험, 그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8.

최영주. “한국 근대 음악문화 형성에서 오르간의 수용과 역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25.

학술논문

강혜경. “일제말기 조선방송협회를 통해 살펴본 방송통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011), 305-344쪽.

- 강희주.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방송.” 『만주연구』 10 (2010), 127-161쪽.
- 김명주. “일제강점기 이왕직악부의 방송활동: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30 (2003), 145-174쪽.
- 김은규. “근대 잡지를 통해 본 1920·30년대 ‘라디오 방송’의 수용에 관한 연구: 『별건곤』과 『삼천리』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1/2 (2015), 5-34쪽.
- 박용규. “일제하 라디오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7/2 (2010), 134-172쪽.
- 서재길. “JODK 경성방송국의 설립과 초기의 연예방송.” 『서울학연구』 27 (2006), 147-173쪽.
- 송방송. “1920년대 방송된 전통음악의 공연양상: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6/3 (2000), 160-210쪽.
- 유인경. “근대 ‘향토가극’의 형성과 특질 연구: 안기영 작곡 가극 작품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19 (2009), 221-280쪽.
- 이경분. “문화·정치적으로 본 신교향악단의 경성연주회(1939-1940).” 『한국예술연구』 29 (2020), 131-154쪽.
- . “열등한’ 일본인과 ‘신비화’된 일본제국: 나치제국의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의 간극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 19/4 (2010), 69-96쪽.
- . “일제시기 서양음악문화와 일본인의 영향,” 『음악논단』 25 (2011), 159-186쪽.
- 이상길. “경성방송국 초창기 연예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 『언론과 사회』 20/3 (2012), 5-74쪽.
- 이은진. “일제강점기경성방송국 서양음악프로그램을 통해 본 당대의 음악적 인식.” 『음악과 현실』 67 (2024), 5-43쪽.
- . “총력전시기 경성방송국 음악프로그램과 ‘국민’의 호명.” 『음악과 현실』 68 (2024), 5-45쪽.

이지선.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음악정책: 국민가의 제정과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9 (2010), 269-290쪽.

이화진. “전시기 오락담론과 이동연극.” 『상허학보』 23 (2008), 88-105쪽.

인터넷자료

[홀로코스트백과사전].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ko/article/world-war-ii-key-dates>. 검색일: 2025. 10. 20.

Abstract

Enlightenment and Propaganda:

Focusing on the Relay Broadcast Program of Music Performances through Kyungseong Broadcasting St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unjin Lee

This article aimed to analyze music concerts and performance programs broadcasted through Kyungseong Broadcasting St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music performance broadcas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n contemporary music culture and public perception. For this purpose, I've classified the music performance broadcasts into four types; broadcasts of Japanese concerts, broadcasts of domestic concerts, broadcasts of stage plays, and exchange broadcasts. Then I've trace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performance broadcasts for each type.

The Japanese concert programs broadcast from the Kyungseong Broadcasting Station not only demonstrated an enlightening intention of the subjects of broadcast programming to provide Korean audiences with better classical music but also led to the internalization of Japanese cultural power by projecting the admiration for European music onto Japan, which had a more advanced musical culture than Korea. Meanwhile, domestic concert programs broadcast by Kyungseong Broadcasting also showed an intention to enlighten the Korean music scene by prominently featuring school concerts and competitions of students who would

lead the next generation of music. In addition, the exchange broadcasts transmitted from Kyungseong Broadcasting St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nternational exchange broadcasts between Japan and Europe, and exchange broadcasts between Korea and Manchukuo. The exchange broadcasts between Japan and Europe reinforced admiration for the Japanese music scene by highlighting the image of Japan as the country that could musically interact with the admired Europe. On the other hand, the Korea–Manchukuo exchange broadcasts revealed Japan's intention to implement its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Plan through the broadcast network.

In this way, the envy for European music and enlightenment intentions inherent in Kyungseong Broadcasting Station's music performance broadcasts were appropriated as part of propaganda and also contributed to sensually imprinting Japan's superiority on the Korean audience. This mechanism operated in the same way in the admiration for the American music scene of the post–liberation era and in Cold War propaganda, reinforcing hierarchical perceptions of music.

Key Words: Kyungseong Broadcasting Station, Relay Broadcast Programme, Envy for the European Music, Enlightenment Intention, Propaganda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5.10.30	2025.11.4.–11.16	2025.11.18